대한피부과학회지 1996;34(2) : 300~303

투명세포 한선종 2예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노영우·김경훈·서기범·박장규

서 론

투명세포 한선종(clear cell hidradenoma)은 에크린 한선 구조중 관조직으로 분화하는 양성 종양으로 병리조직학적 소견에서 투명세포의 관상 분화가 특징적이다. 임상양상은 피부색 혹은 붉은 색조의 낭성 또는 결절성 종괴이며, 장액성 삼출과 궤양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다.

저자들은 19세 남자와 70세 여자 환자에서 투명세포 한선종을 경험하여 함께 보고한다.

증 례

증 례 1.

환 자 : 문 ○○, 19세, 남자

주 소 : 왼쪽 볼에 발생한 종괴

현병력 : 약 1년전 왼쪽 볼에 침두대 크기의 구진이 발생한 후 서서히 커졌으며 외상에 의하여 쉽게 출혈되었으나 동통 혹은 소양증은 없었다.

과거력 : 특기사항 없음

가족력 : 특기사항 없음

이학적 소견 : 전신상태는 건강해 보였으며, 경부 림프절도 촉지되지 않았다.

피부 소견 : 종괴의 크기는 0.7×0.7㎝으로, 경계가 명확한 선홍색의 약간 융기된 결절 양상이었다(Fig. 1).

검사 소견 : 일반혈액검사, 뇨검사, 간기능검사 모두 음성 혹은 정상 범위이었다.

병리조직학적 소견 : 융기된 종괴는 둥근 핵과 호염기성 세포질로 구성된 다면체 세포와 작고 진한 핵과 투명한 세포질로 구성된 투명세포가 혼재해 있었으며, 종괴 사이사이에 만성 염증세포가 침윤된 결체조직이 잘 발달되어 있었다. 투명세포의 일부는 관강구조를 이루고 있었고 호산성 소피가 내강을 형성하고 있었다(Fig. 2). 투명세포는 PAS 염색과 pH 2.5 alcian blue 염색에서 양성소견을 보였으나 diastase 처리 후의 PAS 염색에서는 glycogen의 소실로 음성소견을 보였다.

치 료 : 외과적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현재까지 재발하지 않았다.

증 례 2.

환 자 : 이 ○○, 70세, 여자

주 소 : 우측 유방 하부의 종괴

현병력 : 약 20년전 우측 유방 바로 밑에 완두콩 크기의 결절이 발생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커져서 돌기모양 종괴로 변하였다. 내원 3년 전부터 종괴 표면에 장액성 삼출이 있었으며 동통이나 소양증은 없었다.

과거력 : 특기사항 없음

가족력 : 특기사항 없음

이학적 소견 : 전신상태는 양호하였으며, 액와 림프절은 촉지되지 않았다.

피부 소견 : 내원 당시 종괴는 주로 선홍색의 돌기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우측 1/3은 회색 혹은 연홍색의 소엽상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Fig. 3).

검사 소견 : 일반혈액검사, 뇨검사, 간기능검사 등 정규검사에서 정상 범위 혹은 음성소견을 보였다.

병리 조직학적 소견 : 종괴는 수개의 돌기가 융기된 양상이었고 종괴내의 세포는 균일한 핵과 빈약한 세포질을 가진 다면체 종양세포와 그 주변에 풍부한 세포질과 뚜렷한 세포막을 가진 투명세포의 소엽으로 이루어져 증례 1과 비슷한 모양이었으며 소엽마다 중심부의 투명세포를 다면체 세포가 둘러싸는 양상을 보였고, 종괴 조직의 변성으로 인한 낭종이 다수 발견되었다(Fig. 4). 다면체 세포와 투명세포에 대한 PAS 염색과 pH 2.5 alcian blue 염색에서도 증례 1과 유사한 소견을 보였다. 종괴 변연부는 에크린 한공종 양상의 표피와 경계가 뚜렷한 일정한 크기의 입방형세포를 관찰할 수 있

<접수 : 1995년 10월 18일>

본 논문의 요지는 1994년 10월 14일 제 46차 대한피부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연제로 발표되었음.

Fig. 1. A pinkish, 0.7×0.7×0.5cm in size, round nodule on the left cheek.

Fig. 3. A reddish or gray black colored, 4.0×4.0×2.0cm in size, tumor mass with multiple projec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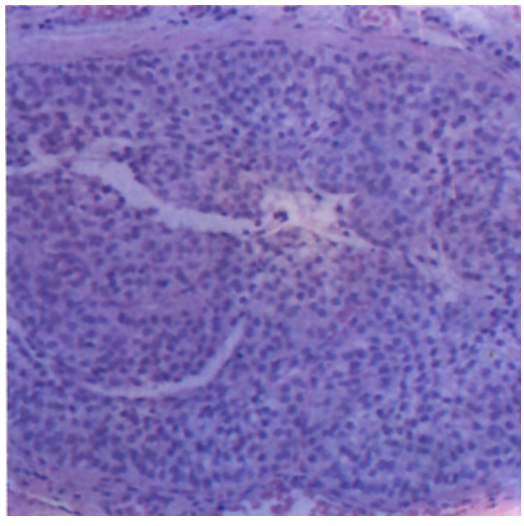

Fig. 2. Tubular spaces are present in the tumor mass. Clear cells have a dark nucleus and clear cytoplasm, and polyhedral cells have a round nucleus and slightly basophilic cytoplasm(H&E,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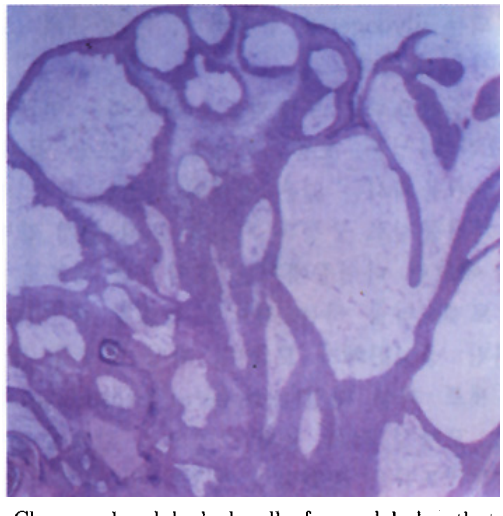

Fig. 4. Clear and polyhedral cells forms lobules that are separated by large cystic and small tubular spaces (H&E, ×10).

었다.

치료 및 경과 : 단순 절제 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재발하지 않았다.

고 찰

투명세포 한선종은 clear cell papillary carcinoma[1], clear cell myoepithelioma[2], eccrine sweat gland adenoma[3], eccrine acrospiroma[4], solid-cystic hidradenoma[5], porosyringoma[4], hidradenoma[6]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워질 정도로 이 종양의 기원이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었다. 최근 조직면역화학적 검사와 전자현미경 소견으로 에크린 한선의 관으로 분화하는 종양임이 밝혀졌다.

본 종양은 30대에 호발하며, 신체 어느 부위에도 발생되나 두부, 액와부, 체간 등에 호발한다. 종양은 0.5-3.0cm 크기의 결절성 종괴로 촉지되며 표면에는 뚜렷한 변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각증상은 대부분 없으나 환자의 20% 정도가 통증을 호소하며, 장액성 삼출 및 궤양도 나타날 수 있다. 본 증례들 중 첫번째 환자는 완두콩 크기의 반구형의 융기성 구진으로 진행되었으며, 두번째 환자의 종괴는 약 17년동안 자각증상 없이 서서히 커지면서 여러개의 돌기들로 튀어나온 흥미로운 모양으로 변하였다. 지금까지 국내에 보고된 대부분의 투명세포 한선종은 첫번째 환자와 같은 단순 융기성 구진 혹은 결절이 대부분이며, 두번째 증례와 같은 특이한 돌기모양의 임상소견을 보인 경우는 문헌 고

찰에서 발견할수 없었으나[7-13], 가끔 증례2와 같은 돌기 모양을 형성할 수도 있다[14]. 이는 아마도 20년의 긴 시간이 경과되면서 종괴내 종양세포의 일부가 변성되어 낭성 구조로 변화되면서 이와 같은 흥미로운 돌기모양을 보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투명세포 한선종의 병리조직학적 소견으로 종괴는 대개 진피내에 위치하며, 소엽으로 구성되고, 피낭성 막으로 둘러 싸여 있다. 소엽내에서 다양한 크기의 관강과 낭상 공간을 관찰 할 수 있다. 관강은 입방형 관상 세포나 원주형 분비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다. 낭성 구조들은 종종 종양세포들에 의해 경계지워지는 경우가 많아 이는 종양세포의 변성에 의하여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소엽을 이루는 종양세포는 중앙부에 진한 핵과 풍부하고 투명한 세포질로 구성된 투명세포와 둥근핵과 호염기성 세포질로 된 다면체 세포로 구성되어지며, 이 두 종류 세포사이의 이행성 세포도 관찰 할 수도 있다. 투명세포는 PAS 염색에 양성이며, diastase 처리에 의해 소실되는 glycogen을 함유하며, 본 종양에서도 이와 같은 소견을 보였다.

감별할 질환으로는 투명세포가 관찰되는 연골양 한관종, 에크린 나선종, 모종, 전이성 신세포암 등이 있다. 연골양 한관종에서는 엷은 청색의 연골양 물질 및 호산성의 초자양물질로 구성된 기질을 보여 쉽게 감별이 가능하고, 에크린 나선종에서는 호염기성 세포로 구성된 소엽이 로젯모양을 하는 점으로 감별할 수 있다. 모종은 커다란 낭성변화가 드물며, 관상 구조를 발견하기 어렵고 세포 책상 배열(peripheral palisading)과 기저양 증식, 모낭성 각화 등의 소견으로 감별할 수 있고, 전이성 신세포암은 출혈성인 경우가 많고 조직학적으로 단일 소엽의 형태로 나타나며 세포들은 지질을 함유하나 점액침착은 관찰 할 수 없다.

치료는 외과적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첫번째와 두번째 증례에서 각각 1년과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발된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결 론

저자들은 19세의 젊은 남자의 얼굴에 1년전 발생한 둥근 단순 결절양 투명세포 한선종과 70세 여자의 유방하부에 20년동안 진행하므로 여러 개의 돌기 모양을 보인 투명세포 한선종을 각각 경험하여 보고한다.

참 고 문 헌

1. Lui Y. The histogenesis of clear cell papillary carcinoma of the skin. Am J Path 1949;25: 93-103
2. Hedington JT, Koskis, Murphy PJ et al. Clear cell glycogenesis in multiple syringomas:Discription and enzyme histochemistry. Arch Dermatol 1972;106:353-360
3. O'Hara JM, Bensch KG. Eccrine sweat adenoma, clear cell type: Histochemical study. Cancer 1966;19:1438-1452
4. Johnson BL, Helwig EB. Eccrine acrospiroma: A clinicopathologic study. Cancer 1969;23:641-657
5. Winkelmann RK, Wolff K, Minn R. Solid-cystic Hidradenoma of the skin. Arch Dermatol 1968; 97:651-661
6. Mackie RM. Skin cancer. Year Book Medical Publisher, Inc, Chicago, 1989;233, 265-279
7. 윤대중, 서은옥, 임철완. Eccrine poroepithelioma 1예. 대피지 1982;20:545-548
8. 장경훈, 이정복. 투명세포 한선종 1예. 대피지 1983;21:113-115
9. 박광영, 박재경, 김상원 등. 투명세포 한선종 1예. 대피지 1990;28:641-654
10. 김홍직, 김영근, 유병국 등. 에크린 한선종, 투명세포 한선종 및 유두상 한선종이 함께 동반된 1예. 대피지 1985;25:675-679
11. 박광영, 신호철, 김상원 등. 선단공 한선종 1예. 대피지 1992;30;939-944
12. 이홍열, 윤철현, 황계영. 선단공 한선종 1예. 대피지 1994;32:523-527
13. 서무규, 성열오, 배한익. 투명세포 한선종 1예. 대피지 1995;33:722-726
14. Harry L. Arnold, Richard B. Odom, William D. James. Andrews' Diseases of The Skin. 8th ed. Philadelphia: W.B. Saunders, 1990:794-795

=Abstract=

Two Cases of Clear Cell Hidradenoma

Young Woo Ro, M.D., Kyung Hoon Kim, M.D., Ki Beom Suhr, M.D.,
Jang Kyu Park, M.D.

Department of Dermat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Taejon, Korea

We report here two cases of clear cell hidradenoma. The first patient was a 19-year-old adolescent, who had single, pinkish, nodule on the left cheek for 1 year. The second case of 70-year-old woman had multiple projecting, pinkish tumor mass with serous discharge on the right inframammary area for 20 years. On histopathological examination, we could observe polyhedral cells and clear cells with tubular differentiation in both cases and large cystic changes due to tumoral degeneration in the second case.

The tumor masses were excised, and have not recurred.

(Kor J Dermatol 1996;34(2) : 300~303)

Key Words : Clear cell hidradenoma